

지역 소식통

고창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한마음 대회

고창군과 고창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조상봉)가 5일 선운산 유스호텔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주제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행시에는 삼덕읍 고창군수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장과 사회복지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 10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어려운 이웃 5명에 대한 행복나눔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삼덕읍 고창군수는 "그동안 어려운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역의 복지가 발전될 수 있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상봉 고창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해온 사회복지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023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 시민위원회 열어

정읍시는 지난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위원장 정경영)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10년부터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3일간 열린 회의에서 시민위원회는 시민 제안사업과 도 지역 밀착형 사업, 23개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발굴한 사업 등 총 250개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건의한 사업은 실무부서에서 현지 확인과 검토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해 결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행정기구 조직개편 나선다

정읍시, 효율적 업무추진 위해... 시민소통실 등 5개과 신설 2개과 폐지

정읍시가 시정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안 사업 추진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나선다. 시는 지난 28일 민선 8기 차민 중심, 으뜸 정읍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시정 주요 과제 실천 등 민생 수요에 중점을 두고 유사 기능 통합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효율을 제고하겠다"며, "정읍의 미래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시민소통실 등 5개과를 신설하고 성장전략실 등 2개과를 폐지했으며, 총정원은 1,253명으로 기본보다 2명 증원됐다. 개편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민소통실을 신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민 중심" 시정 구현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또한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축제인 '제49회 고창 모양성제'가 전통과 미래의 어울림에서 호평을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역사 · 미래, 즐거움 모두 담았다"

제49회 고창모양성제 성황리 마무리... '메타버스 모양성' 인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축제인 '제49회 고창 모양성제'가 전통과 미래의 어울림에서 호평을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리와 고을의 안녕을 위한 축성의미를 되새기며 큰 호응을 얻었다. 결의에 찬 조선군의 훈련과 왜적의 침략, 조선 장수와 왜나라 장수의 미상전투 등이 실감나게 펼쳐지며 남녀노소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5일 고창군은 지난 30일부터 3일간 열린 '제49회 고창모양성제'가 역사, 즐거움, 어울림의 주제의식을 축제 전체에 담아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첫 시도된 메타버스(가상 공간) 모양성제도 큰 관심을 끌었다. 메타버스 공간에 모양성(고창읍성)을 현실과 동일하게 구현하고, 답성놀이를 즐겼다. 또 스토리와 게임 기능을 추가해 참여자들이 더욱 더 즐겁게 축제에 참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울러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는 교육정책과 체육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체육청소년과를 인제안정과로 개편하고, 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진흥사업소로 개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옥정호 일대 '녹조' 발생 현장 방문... 대책 마련 주문

이학수 정읍시장, 전북도에 '안전식수원 확보 근본대책' 요구 · 입실군에 수면 개발 중단 '촉구'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0월 1일 정읍시 산내면 옥정호 일대를 방문해 녹조 확산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녹조 발생 대응상황도 점검하고 녹조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북도(물환경관리과)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업무체계를 강화 하라고 강조했다.

2015년 당시 전북도지사와 정읍시장, 입실군수, 순창군수가 서명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 제4항은 "옥정호 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민 입실군수는 지난 7월 20일 한 방송을 통해 "옥정호에 배를 띄우고 생태 탐방선을 운행할 수 있는 수면 개발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 각종 행사 준비 등 현안업무 철저 '당부'

정읍시는 5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민선 8기 첫 청원 조화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과 실·과·소장을 비롯해 본청과 읍·면·동 직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각자 맡은바 당면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우선 격려했다.

스트 총장을 초청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강연도 병행 진행됐다. 강의에서 이 총장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준비'라는 주제로 인구 질적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발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각종 축제와 행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만큼,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청원 조화에서는 이광형 카이

아울러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곰소젓갈발효축제 개막 D-2, 축제장 준비 완료

리온 the 곰소, 젓갈에 스타일을 입히다란 주제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펼쳐지는 제14회 곰소젓갈발효축제를 앞두고 축제 홍보 및 귀한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 먹거리 마당에는 가마솥밥과 젓갈 시식, 통비빔국수 시식, 가을 전어와 새우구이, 젓갈 도시락, 한접김치, 젓갈 소스 등 다양한 젓갈 음식도 준비되어 있다. 연예공연은 오은주와 헤라, 김성한, 녹색시대 등의 무대공연도 즐길 수 있다.

이번 축제의 구성은 공식행사, 연예공연, 먹거리 마당, 경연, 체험마당, 특별이벤트 행사로 구성된다. 특히 김장철 맞이 젓갈왕인 행사, 김수미 연예인과 함께하는 곰소젓갈 김치 담그기, 젓갈 소스개발 경연대회, 가을 전어잡기 등 체험행사를 비롯해

또한 반짝이는 바다와 넓게 펼쳐진 코스모스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곰소역 포토존도 준비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캠핑 마니아들과 함께 하는 버스킹 공연, 캠프파이어, 불꽃놀이, 소원 풍등 날리기 등 밤하늘에 화려한 별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